

## 기후변화 발생 책임인식이 관광 상황에서 개인 규범과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mining the Responsibility about Climate Change Influence on Personal Norm and  
Pro-environmental Behaviour in Tourism Condition

유광민\*\* · 김현정\*\*\* · 김남조\*\*\*\*

Yoo, Kwang-Min · Kim, Hyun-Jung · Kim, Nam-Jo

**요약** : 관광산업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에 대한 참여 촉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관광 상황에서 관광객들은 친환경 행동에 참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관광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친환경 행동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광 상황에서 친환경 행동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촉진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인식과 개인 규범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인식 중 개인 책임인식은 개인규범을 활성화시켜 친환경 행동을 촉진하며, 개인 규범 중 기술적 규범이 명령적 규범보다 친환경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관광객들의 친환경 행동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광기업들은 관광객들의 비 친환경행동이 기후변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친환경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광객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 기후변화, 책임인식, 개인규범, 친환경 행동

**ABSTRACT** : Tourism is being asked for efforts to adapt climate change. Promoting pro environmental behaviour of tourist is the important strategy about it. But in tourism condition, tourist have a tendency to lower participation in eco-friendly behavior. So, strategies to promote pro environmental behaviour is needed. In order to establish appropriate strategies, it is needed to understand which factors facilitate pro environmental behaviour. This study conducted the responsibility about climate change influence on personal norms and pro environmental behaviour. According to study result, personal responsibility among responsibility about climate change activate personal norm and promote pro environmental behaviour in tourism condition. And descriptive norm than injunctive norm among personal norm have more powerful influence on it. Therefore, to increase tourist's participation on pro environmental behaviour, activities to raise the awareness that tourist has the responsibility about climate change and tourist's action conducting pro environmental behaviour on tourism condition is more desirable are necessary.

**Key words** : Climate change, Responsibility, Personal norm, Pro-environmental behaviour

\* 본 연구조사는 2012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2S1A5A2A03034718)에 의해 수행되었음

\*\* 한국관광공사 전문위원. e-mail: ykm4458@hanmail.net

\*\*\* 강원도립대 관광과 시간강사. e-mail: hjhj2545@naver.com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교신저자). e-mail: njkim@hanyang.ac.kr

## I. 서론

현재 전 세계는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에서도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공급자 입장은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노력들은 주로 소비자의 친환경 행동 참여 증진의 도모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관광 상황에서 친환경 행동에 대한 관광객 참여는 일상 환경에서 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13; Barr, Shaw, Coles, & Prillwitz, 2010; Hares, Dickinson & Wilkes, 2010; Miao & Wei, 2013). 공급자는 물론 정책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 참여 촉진 정책은 관광객의 자발적 친환경 행동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관광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친환경 행동이 어떻게 촉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김현정·유광민·김남조, 2014b).

친환경 행동은 환경문제 발생이 누구 책임인가 그리고 친환경 행동에 대한 압력으로서의 사회적 규범이 개인적 규범으로 전환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후변화 발생 원인의 책임 소재를 외부에 두거나 친환경 행동이 개인적 규범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전략 등의 차이는 친환경 행동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Patchen, 2006).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내적 책임으로 귀인하는 경우가 외적 책임으로 귀인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친환경 행동을 보인다(Stoll-Kleemann *et al.*, 2001).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적 책임인식이 사회적 책임인식보다 친환경 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책임귀인은 개인규범을 강화시켜 친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유승엽·임영식, 1999).

일반적으로 친환경 행동은 환경보존을 위한 규범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행동 또한 사회의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규범화되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 규범은 수용 과정을 통해서 내재화되어 개인적 규범으로 전환되며, 개인적 규범은 친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적 규범은 사회적 압력을 크게 받는 명령적 규범과 주변 상황에 의존하는 기술적 규범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 규범들이 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유광민·김남조, 2013). 따라서 관광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친환경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 규범 중 어떠한 규범이 친환경 행동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관광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행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인식과 개인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인식이 개인규범 특히 명령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관광 상황에서 친환경 행동 참여가 어떻게 촉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는 관광 상황에서 친환경 행동을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II. 이론고찰

### 1. 친환경 행동

친환경 행동(pro-environmental behaviour)이란 최대한 환경적 피해가 적은 행

동 혹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서(Steg & Vlek, 2009; Stern, 2000), 긍정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 계획, 수행과 관련된 계획적인 전략으로 이해된다(Emmons, 1997; 최정구, 2010 재인용, p.62). 친환경 행동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Van Liere & Dunlap, 1981; Dunlap, Grieneekes & Rokeach, 1983). 관광분야에서 친환경행동에 관한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친환경 행동에 관한 연구보다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행동의 측정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친환경 행동의 유형과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맥락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 상황에서의 친환경 행동을 관광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행동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관광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운송이 75%, 숙박이 21%, 관광활동이 4%를 차지하고 있다(UNWTO, 2007). 이와 같이 관광활동을 통한 직간접적 이산화탄소 배출은 육상 운송, 항공운송, 수상운송 등 이동, 숙박시설 및 관광활동에서 이루어진다(박종구·김명식, 2012). 그러므로 관광분야에서 친환경행동 측정은 관광객의 목적지 이동수단 선택(Hares, Dickinson & Wilkes, 2010; Hergesell & Dickinger, 2013), 숙박시설 내 절약행동(Goldstein, Cialdini & Griskevicius, 2008; Han, Hsu, Lee & Sheu, 2011), 친환경 제품 구매 및 사용행동(김현정 외, 2014a, 2014b; 박종구·김명식, 2012), 관광목적지 내 친환경 행동(윤현희·이진호, 2013) 등 관광 활동 중에 이용하게 되는 시설과 관련된 친환경 행동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은 운송부문인 친

환경 교통수단 이용 행동, 숙박시설 및 여행지에서의 에너지 절약행동과 에너지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행 시 친환경 제품 구매 및 이용 행동으로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친환경 행동이 아닌 행동의도를 측정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Dolnicar and Leisch(2008)에 따르면, 관광 분야에서 친환경 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실제 친환경적인 행동을 측정하지 않고, 친환경 행동에 대한 태도를 친환경적인 행동의 선행변수로 다루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본인이 수행한 관광 시 친환경 행동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관광 분야의 친환경 행동 연구들 역시 일상생활 범주의 친환경행동에 관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환경태도, 환경신념, 환경지식, 가치와 같은 친환경행동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으나, 최근 선행연구들은 관광 상황에서 친환경 행동이 발생하는 맥락은 일상생활에서와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치가 일상생활에서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보다 친환경행동이 실천되기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13; Kim, Kim & Yoo, 2014; Barr et al., 2010; Hares et al., 2010; Miao & Wei, 2013). 이에 따라 관광분야에서 친환경행동은 타 분야의 친환경 행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관광환경에서의 친환경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에 대해 밝힐 필요성이 있다.

## 2. 기후변화 발생 책임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인식은 친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Patchen, 2006).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인식은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책임인식은 친환경 행동에 대한

개인 규범과 친환경 행동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귀인이론에 따르면,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귀인하는가에 따라서 친환경 행동 참여가 다르게 나타난다. 사람들은 모든 행위나 사건의 궁극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지, 사회에 있는지 판단한다. 만약에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판단하면 그 해결책도 개인에게 있고, 원인이 사회에 있다면 그 해결책도 사회에 있다고 추론하게 된다(김옥태·손영준·나은경, 2013, p.64). Stoll-Kleemann *et al.*(2001)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나 기업에게 기후변화의 책임이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행동 참여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개인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비해, 친환경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기후변화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은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인과성 책임귀인을 높이게 되므로 개인 규범을 강화시켜서 친환경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유승엽·임영식, 1999).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인식과 개인 규범, 친환경 행동에 대한 영향관계는 관광 상황에서도 일상생활 환경과 마찬가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가설 1] 관광 상황에서 기후변화 발생 책임 인식 중 개인적 책임인식이 사회적 책임인식보다 친환경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관광 상황에서 기후변화 발생 책임 인식 중 개인적 책임인식이 사회적 책임인식보다 친환경 행동에 대한

개인적 규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개인적 규범-사회적 명령적 규범과 개인적 기술적 규범

규범은 사회적 차원의 규범과 개인적 측면에서의 규범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규범은 집단이나 사회의 태도나 행동 준거가 되며 (Hooper & Nielsen, 1991), 사회구성원들은 암묵적으로 사회규범을 지킴으로써 인정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삼가려고 노력한다(김종흠, 2012). 사회규범은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에게 적용되어 개인규범이 된다(Hopper & Nielsen, 1991: 199). 개인규범을 위반하고 지키는 결과가 개인의 자아개념과 결부되며, 개인 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개인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는 반면, 개인규범을 지킨다는 것은 자긍심을 심어준다. 따라서 개인규범은 내면화된 도덕적 태도가 된다(Hopper & Nielsen, 1991: 200). 이러한 개인의 도덕적 규범은 자기 강화적 성격을 지니며, 규범을 어겼을 때의 처벌과, 바람직한 행동을 해서 오는 심리적 보상의 근원 모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 근원이 타인이나 사회라고 보는 사회적 규범과 다르다(김종흠, 2012).

친환경 행동연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Schwartz(1972, 1977)의 norm-activation theory에 따르면, 친환경적 행동은 친환경에 대한 개인 규범에 대응하여 일어나며, 이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지지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 규범은 친환경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이해되고 있다(Stern, Dietz, Abel, Guagnano & Kalofm, 1999). 개인 규범은 “그것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혹은 “이 규범이 나의 규범에 통합되어야 하는가”의 개념으로서 “개인이 어떤 행동이나 대상에 대해 스스로 규제하여 느끼는 의무감이나 책임”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개념적으로는 Ajzen의 주관적 규범과 크게 다르지 않다(안정민·장홍섭·류영실·이지영, 2010).

Ajzen의 주관적 규범은 전통적으로 명령적 요인(injunctive)과 기술적 요인(descriptive)을 포함하여 측정하여 왔다(Ajzen, 2000). 그러나 두 개의 규범이 규범으로서 행동에 대한 압력과 통제를 반영하지만 개념적으로 행동수행에 대한 별개의 동기 원천(Rivis & Sheeran, 2003)이며 행동수행에 대한 서로 다른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Hagger & Chatzisarantis, 2005). 기술적 규범은 어떠한 행동이 전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행동인가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나 어떠한 행동이 도덕적인가를 나타내는(Dean, Raats & Shepherd, 2008) 반면에 명령적 규범은 어떠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있는가 혹은 수행되어야 하는 행동인가에 대한 믿음이다(Cialdini, Reno & Kallgren., 1990; Kallgren, Reno & Cialdini, 2000). 많은 TPB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을 단일 개념으로 다루고 있지만, Rhodes and Courneya (2003)의 연구에서와 같이 주관적 규범은 명령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과 같은 두 가지의 하위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Fishbein and Ajzen(2010) 또한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ur) 모델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을 명령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을 포함하여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고, 유광민·김남조(2013)의 연구에서도 개인규범을 두 개 규범으로 구성된 TPB 모델이 친환경 행동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명령적 규범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지배적인 반면, 기술적 규범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이혜규·백혜진, 2010: 105). 명령적 규범이 행동이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사람들은 규범을 어겼을 때, 본

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사회적 제재나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명령적 규범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Cialdini & Trost, 1998; 이혜규·백혜진, 2010 재인용 p.104-105).

한편, 두 개의 규범은 행동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Harland, Staats and Wilke(1999)에 따르면, 다섯 가지의 친환경 행동 의도(깡지 사용, 고가소비 줄이기, 자가용 대신 다른 교통수단 선택, 고효율 전구 사용, 물 절약)의 결정요인으로서 기존 TPB의 구성개념에 개인적 규범이 포함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설명력 증가량이 1~10%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개인적 규범의 영향은 친환경 행동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행동이 일어나는 사회적/환경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amberg, Hunecke, & Blöbaum, 2007 재인용, p.191).

그렇다면 관광 상황에서의 친환경 행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규범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명령적 규범이 기술적 규범보다 행동이나 행동의도에 더 많은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관광활동 과정에서는 명령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일상생활보다 약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관광환경에서는 친환경 행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제재나 불인정 등과 같은 사회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기대되고, 이러한 기대는 명령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을 추동할 힘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광 상황에서 친환경 행동이 일상 환경에 비해 잘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반면에 기술적 규범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행동 의도나 행동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본인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고민을 줄이기 위해 다수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다(이혜규·백혜진, 2010). 따라서 일상생활과 같이 친환경 행동이 일상화되어있지 않은 익숙한 환경이 아니거나 쾌락적 소비가 중요한 관광 상황에서는 명령적 규범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반면에 기술적 규범이 친환경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기술적 규범에 의존한 소구를 한 집단에서 호텔에서 타월 재사용 수준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이해될 수 있다(Goldstein, Cialdini, & Griskevicius, 2008). 동시에 이 연구결과는 관광 상황에서 친환경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기술적 규범의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적 규범의 영향력보다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설 3] 관광 상황에서 명령적 규범보다 기술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설문지 구성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인식은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을 측정할 수 있는 Stern *et al.* (1999), Steg, Dreijerink and Abrahamse (2005) 척도를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 10문항, 개인적 책임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관

광 상황에서의 친환경 행동에 대한 개인적 규범은 TPB 모델의 주관적 규범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명령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을 포함하여 Kim and Lee(2011), Kraft, Jostein, Stephen and Røysamb(2005), Rhodes and Courneya(2003), Conner and McMillan (1999)의 척도를 활용하여 관광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관광 상황에서의 친환경 행동은 McKercher, Prideaux, Cheung and Law(2010), McKercher and Prideaux(2011)의 척도를 활용하여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표본 수집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20세 이상의 성인이며, 표본샘플은 1,000부로 국가적 표본(national sample)을 수집하였다. 표집방법은 표본할당표집을 적용하였으며, 통계청 인구총조사(2013년 6월) 자료에 따라 행정구역(광역시도 단위), 성별, 연령, 교육수준별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프로패널을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온라인 패널 120만 명을 구축하고 있는 리서치 전문 기관을 이용하였으며, 프로패널 비율을 적용한 패널 30만 명에게 3회 메일서베이를 발송하여 응답자가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1,000명의 유효한 응답지가 수집되었다.

〈표 1〉 설문지 구성

변수	문항 수	척도	출처
기후변화 책임인식	사회 책임	10	5점 척도 Stern <i>et al.</i> (1999), Steg <i>et al.</i> (2005)
	개인 책임	7	
개인적 규범	명령적 규범	4	5점 척도 Ajzen, 2000; Kim & Lee, 2011; Kraft <i>et al.</i> , 2005; Rhodes & Courneya, 2003; Conner & McMillan, 1999
	기술적 규범	3	
친환경 행동	21	5점 척도	McKercher, Prideaux, Cheung, & Law(2010), McKercher, & Prideaux(2011)
총 문항 수	45		

## IV. 분석결과

###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은 <표 2>와 같이 학력별, 성별, 연령대별, 거주지별로 할당 비율과 유사한 비율로 수집되었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인구총조사(2013년 6월) 인구비율 기준과 매우 유사한 비율로 추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2. 신뢰도 및 요인분석

모든 요인분석은 Varimax 회전법을 통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관광에서의 친환경 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공통성과 적재량은 0.4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KMO는 0.957,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값  $\chi^2 = 11720.047(p=0.000)$ 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고유값 1 이상을 보인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

으며, 각각의 요인은 절약하거나 소비량을 줄이고자 하는 친환경 행동인 저소비 친환경 행동, 좀 더 친환경적인 수단을 선택하고자 하는 친환경 선택행동, 구매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구매를 하고자하는 친환경제품구매 행동으로 명명되었으며, 총분산은 58.7%이다(표 3).

개인규범에 대한 요인분석은 이론적으로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을 별개의 규범으로 다루고자 하였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 모두 고유값 1 이상으로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은 0.7이상, 적재량은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적 규범에 대한 KMO는 0.712,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값  $\chi^2 = 1712.274(p=0.000)$ , 명령적 규범에 대한 KMO는 0.830,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값  $\chi^2 = 197.395(p=0.000)$ 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표 4).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인식에 대한 탐색적 요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력	빈도	퍼센트	거주지	빈도	퍼센트
고졸	548	54.8	서울	212	21.2
대재	428	42.8	부산	72	7.2
대학	24	2.4	대구	51	5.1
합계	1000	100.0	인천	55	5.5
성별	빈도	퍼센트	광주	24	2.4
남성	486	48.6	대전	29	2.9
여성	514	51.4	울산	21	2.1
합계	1000	100.0	경기	230	23.0
연령	빈도	퍼센트	강원	31	3.1
20~29세	179	17.9	충북	31	3.1
30~39세	216	21.6	충남	41	4.1
40~49세	223	22.3	전북	36	3.6
50~59세	178	17.8	전남	36	3.6
60세 이상	204	20.4	경북	56	5.6
합계	1000	100.0	경남	64	6.4
			제주	11	1.1
			합계	1000	100.0

인구총조사(2013 6월) : 성별(남 49.7%, 여 50.3%), 연령(20세 미만 비율 제외 : 20대 17.9%, 30대 21.2%, 40대 22.3%, 50대 17.6%, 60대 이상 20.7%), 교육수준(고등학교 이하 56.8%, 대학교 졸업 38.9%, 대학원 졸업 4.3%), 행정구역(서울 20.1%, 부산 7.1%, 대구 5.1%, 인천 5.5%, 광주 3.0%, 대전 3.1%, 울산광역시 2.2%, 경기 23.3%, 강원 3.0%, 충북 3.1%, 충남 4.2%, 전북 3.7%, 전남 3.6%, 경북 5.4%, 경남 6.5%, 제주 1.1%)

〈표 3〉 국내 관광에서의 친환경행동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아이젠값, 분산) 신뢰도	변수	공통성	적재량
저소비친환경 행동 (9.759 46.471%) 0.914	여행 시 물 사용량을 줄인다.	.714	.766
	여행 시 전기 사용량을 줄인다.	.717	.766
	숙박시설 이용 시 물 사용량을 줄인다.	.673	.739
	숙박시설에서 전등/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끈다.	.552	.701
	관광목적지에서 탄소를 덜 배출한다.	.654	.682
	여행 시 쓰레기를 더 적게 배출한다.	.616	.668
	여행 시 쓰레기를 분리배출 한다.	.490	.610
	타월/린넨을 덜 교체한다.(매일 바꾸어 사용하지 않는다)	.484	.594
	숙박시설 이용 시 정부권장온도(여름철 26~28도, 겨울철 18~20도)를 유지한다.	.543	.521
친환경선택 행동 (1.541 7.337%) 0.835	국내여행 시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버스, 전철, 기차 등)을 이용한다.	.606	.763
	관광지에서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한다.	.591	.747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641	.710
	친환경으로 인증된 숙박시설을 이용한다.	.606	.592
	여행 동반자와 카풀을 하거나 탈 것을 공유한다.	.481	.533
	국내 관광지로의 이동수단을 결정할 때, 탄소배출 문제에 대해 고려한다.	.588	.495
친환경제품 구매행동 (1.021 4.860%) 0.823	여행 시 지역주민의 수입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한다.	.672	.734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음식, 제품을 구매한다.	.567	.706
	여행 시 쓰는 물건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구매한다.	.609	.618
	일회용 구매를 줄이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	.533	.597
	국내 이동 항공이용 시 탄소배출과 같은 환경적 피해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요금을 지불하겠다.	.525	.515

인분석에서는 공통성은 모든 항목에서 0.5 이상, 적재량은 모든 항목에서 0.6이상으로 나타났다으며, KMO는 0.947,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값  $\chi^2 = 12939.853(p=0.000)$ 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요인분석결과, 기후변화에 대

한 책임인식은 고유값 1이상의 2개로 구분되었으며, 각각 사회의 책임 인식과 개인의 책임 인식으로 명명되었고, 총분산은 58.1%로 나타났다(표 5).

〈표 4〉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의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아이젠값, 분산) 신뢰도	변수	공통성	적재량
기술적 규범 (2.436, 81.187%) 0.883	내 가족들은 관광시 친환경행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984	.875
	내 친구들은 관광시 친환경행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872	.930
	주변사람들은 관광시 친환경행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939	.898
명령적 규범 (2.874, 71.855%) 0.868	주변사람들은 관광시 친환경행동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56	.839
	주변사람들은 관광시 친환경행동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759	.864
	주변사람들은 관광시 친환경행동을 하는 것을 권유한다	.755	.869
	주변사람들은 관광시 친환경행동을 하는 것을 찬성할 것이다	.953	.818



〈표 5〉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인식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아이젠값, 분산) 신뢰도	변수	공동성	적재량
사회 책임 (9.237, 48.616%) 0.938	선진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0.694	.814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0.700	.810
	선진국 정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을 할 책임이 있다.	0.729	.800
	다국적 기업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을 할 책임이 있다.	0.726	.788
	기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0.629	.752
	기업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을 할 책임이 있다.	0.682	.751
	중앙정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을 할 책임이 있다.	0.643	.698
	정치인들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을 할 책임이 있다.	0.602	.686
	중앙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0.541	.671
개인 책임 (1.805, 9.501%) 0.912	정치인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0.569	.641
	나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0.733	.808
	나는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0.710	.800
	나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0.726	.798
	나는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개인적 책임감을 느낀다.	0.656	.766
	높은 에너지 소비수준은 정부와 산업뿐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책임이 있다.	0.600	.747
	소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0.593	.625
소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한 행동을 할 책임이 있다.	0.621	.600	

### 3. 가설검증

#### 1) 가설 1 검증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인식이 관광에서의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사회 책임이라는 인식은 저소비 선택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친환경 선택행동에는 (-)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친환경제품 구매행동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 0.1(p=0.014)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후변화 발생이 개인 책임이라는 인식은 모든 친환경

행동에서 0.354, 0.312, 0.325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가 개인 책임이라는 인식은 모든 친환경 행동에 강한 (+)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은 행동 종류에 따라 작은 영향을 미치거나 (-)의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Stoll-Kleemann *et al.*(2001)의 연구결과와 같이 관광에서도 기후변화 발생에 대한 책임인식 중 사회적 책임인식보다는 개인적 책임인식이 친환경 행동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될 수 있다.

〈표 6〉 기후변화 발생 책임인식이 관광에서의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 독립	저소비 친환경행동			친환경선택행동			친환경제품구매행동		
	$\beta$	t	p	$\beta$	t	p	$\beta$	t	p
사회책임	.033	.815	.415	-.097	-2.257	.024	.100	2.472	.014
개인책임	.354	8.643	.000	.312	7.302	.000	.325	8.017	.000
수정된R <sup>2</sup>	0.141			0.063			0.159		
F/p	83.005/0.000			34.502/0.000			95.503/0.000		

모든 모델에서 VIF는 1.949,  $\beta$  = 표준화된 회귀계수

〈표 7〉 기후변화 발생 책임인식이 관광에서의 친환경 행동에 대한 개인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

종속 독립	기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			
	$\beta$	t	p	VIF	$\beta$	t	p	VIF
사회책임	-.071	-1.739	.082	1.949	.021	.511	.609	1.949
개인책임	.423	10.336	.000	1.949	.352	8.553	.000	1.949
수정된R <sup>2</sup>	0.140				0.133			
F/p	82.591/0.000				77.476/0.000			

$\beta$  = 표준화된 회귀계수

2) 가설 2 검증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인식이 개인적 규범(기술적 규범, 명령적 규범)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기후변화가 사회 책임이라는 인식은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 모두에서 유의수준 0.05에서는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0.1 이하의 수준에서는 기술적 규범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후변화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은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 모두에서 0.423과 0.352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발생 책임 인식 중 개인적 책임인식이 사회적 책임인식보다 관광에서의 친환경에 대한 개인적 규범의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 모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될 수 있다. 즉 가설 2의 지지는 개인 책임인식이 인과성 책임귀인을 높여 개인규범을 강화(유승엽·임영식, 1999)시킨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3) 가설 3 검증

개인적 규범 중 명령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명령적 규범은 친환경제품 구매 행동에서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0.128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기술적 규범은 관광에서의 친환경 행동에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각각 0.469, 0.473, 0.412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광 상황에서의 친환경행동에 개인적 규범 중 기술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명령적 규범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될 수 있다. 가설 3의 지지는 일상생활에서는 명령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달리 관광에서의 친환경 행동은 명령적 규범의 영향력을 약화되고 기술적 규범에 의존해서 추동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V. 종합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관광 상황에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친환경 행동이 어떻게 촉진될 수 있는가

〈표 8〉 개인적 규범이 관광에서의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행동 개인규범	저소비			친환경선택			친환경제품구매		
	$\beta$	t	p	$\beta$	t	p	$\beta$	t	p
기술적	.469	11.897	.000	.473	12.057	.000	.412	10.471	.000
명령적	.056	1.413	.158	.057	1.463	.144	.128	3.247	.001
수정된R <sup>2</sup>	0.133			0.265			0.261		
F/p	77.476/0.000			181.178/0.000			177.311/0.000		

$\beta$  = 표준화된 회귀계수, 모든 모델에서 VIF는 2.094

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인식이 관광 상황에서 개인규범과 친환경 행동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인식은 개인 책임인식과 사회 책임 인식으로 구분하였고, 개인규범은 TPB 모델의 주관적 규범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며,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광 상황에서의 친환경 행동은 명령적 규범보다는 기술적 규범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과 같은 소비환경은 일상적인 사회 환경보다는 사회적 규범의 영향력으로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제재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명령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에 관광과 같은 탈 일상적 환경에서는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정보를 통해 어떠한 행동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해주는 기술적 규범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명령적 규범이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다른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인식 중 사회의 책임 인식은 친환경 행동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술적 규범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친환경선택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개인의 책임인식은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은 물론 모든 친환경 행동에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인식에 따라 개인규범으로 내재화가 다르게 나타나며, 친환경 행동에도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관광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적 책임인식이 개인규범으로 내재화되어 친환경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관광 상황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내적 규

인 강화가 친환경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적 압력이 약해지는 관광 상황에서 친환경 행동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인식을 개인 책임인식으로 인식할수록, 사회적 압력으로서의 개인적 규범인 명령적 규범보다는 기술적 규범에 의해 촉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왜 일상 상황보다 관광 상황에서 친환경 행동이 낮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에 대한 참여가 어떻게 촉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관광 상황에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친환경 행동 변화 유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의 책임인식을 높이는 교육이나 정보제공과 더불어 기술적 규범에 의존하는 친환경 행동 참여 촉구 등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 관광기업들은 관광객의 소비 행동이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과 관광 상황에 관광객이 친환경 행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제고 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옥태 · 손영준 · 나은경(2013). 뉴스이용과 책임귀인이 섯다운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13(4), 61-72. <http://dx.doi.org/10.7583/JKGS.2013.13.4.61>
- 김종흠(2012). 친환경 행동 및 친환경 유기농산물 구매의도에 대한 도덕적 규범의 활성화 효과: 암묵적 태도와 외현적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3(2), 137-158.
- 김현정 · 유광민 · 김남조(2014a). 캠핑객의 레크리

- 에이션 전문화 수준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 『관광학연구』, 38(7), 13-33.
- \_\_\_\_\_ (2014b). 가치, 기후변화 문제지가 및 개인적 책임이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6(4), 43-66.
- 박종구·김명식(2012). 탄소배출량 정보에 따른 저탄소 녹색관광상품 구매의도의 영향. 『관광학연구』, 36(2), 119-139.
- 안정민·장홍섭·류영실·이지영(2010). 규범-환경친화적 구매행동의 관계에 있어 개인특성이 미치는 조절적 영향. 『경영교육연구』, 60, 299-318.
- 유광민·김남조(2013). 캠핑장의 쓰레기 분리배출 행동의도 분석: 고차요인구조 TPB 모델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7(7), 149-170.
- 유승엽·임영식(1999). 한국인의 책임회피의식과 귀인 및 통제소재와의 관계성 고찰.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3(1), 105-122.
- 윤현희·이진호(2013). 농촌관광마을의 지각된 가치가 장소애착과 친환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농어촌관광연구』, 20(1), 53-71.
- 이혜규·백혜진(2010). 흡연환경이 규범 소구 급연 광고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규범적 행동의 초점이론과 규범 현저성.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 2(2), 99-128.
- 최정구(2010). 『그린소비자의 가치관이 환경 친화적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식 관련변수의 매개역할』.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한양대학교(2013). 『기후변화 인식과 관광 대응행동 기초조사(1)』. 서울: 한양대학교관광연구소.
- Ajzen, I. (2000). Construction of a standard questionnaire for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http://www-unix.oit.umass.edu/~ajzen/> [Retrieved 20 November 2000].
- Bamberg, S., Hunecke, M., & Blobaum, A. (2007). Social context, personal norms and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Two field studi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7(3), 190-203.
- Barr, S., Shaw, G., Coles, T., & Prillwitz, J. (2010). 'A holiday is a holiday': Practicing sustainability, home and away.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8(3), 474-481.
- Cialdini, R., Reno, R., & Kallgren, C. (1990). A focus theory of normative conduct: Recycling the concept of norms to reduce littering in public pla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6), 1015-1026.
- Cialdini, R. B., & Trost, M. (1998). Social influence: Social norms, conformity, and compliance.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ition, p.152).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onner, M., & McMillan, B. (1999). Interaction effects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Studying cannabis use.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 195-222.
- Dean, M., Raats, M., & Shepherd, R. (2008). Moral concerns and consumer choice of fresh and processed organic food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8), 2088-2107.
- Dolnicar, S., & Leisch, F. (2008). Selective marketing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ourism. *Tourism Management*, 29(4), 672-680.
- Dunlap, R. E., Grieneeks, J. K., & Rokeach, M. (1983). Human values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In W.D.Conn (Ed.), *Energy and material resources: Attitudes, values and public policy* (pp. 145-168). CO: Westview.

- Emmons, K. M. (1997). Perspectives on environmental action: Reflection and revision through pract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9(1), 34-44.
- Fishbein, M., & Ajzen, I. (2010). *Predicting and changing behavior: The reasoned action approach*. New York: Psychology Press.
- Goldstein, N., Cialdini, R., & Griskevicius, V. (2008). A room with a viewpoint: Using social norms to motiv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hotel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5, 472-482.
- Han, H., Hsu, L. T. J., Lee, J. S., & Sheu, C. (2011). Are lodging customers ready to go green? An examination of attitudes, demographics, and eco-friendly int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30(2), 345-355.
- Hagger, M. S., & Chatzisarantis, N. L. D. (2005). First- and higher-order models of attitudes, normative influence, and perceived behavioural control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 513-535.
- Harland, P., Staats, H., & Wilke, H. A. (1999). Explaining proenvironmental intention and behavior by personal norms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12), 2505-2528.
- Hares, A., Dickinson, J., & Wilkes, K. (2010). Climate change and the air travel decisions of UK tourists.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8(3), 466-473.
- Hergesell, A., & Dickinger, A. (2013). Environmentally friendly holiday transport mode choices among students: The role of price, time and convenienc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1(4), 596-613.
- Hopper, J. R., & Neilsen, J. M. (1991). Recycling as altruistic behavior: Normative and behavioral strategies to expand participation in a community recycling program. *Environment and Behavior*, 23, 195-230.
- Kallgren, C., Reno, R., & Cialdini, R. (2000). A focus theory of normative conduct: When norms do and do not affect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8), 1002-1012.
- Kim, W. G., & Lee, G. H. (2011). Understanding behavior intentions of tourists: Incorporating a Visitor's place of origin into the TPB model. 『관광연구』, 26(3), 89-111.
- Kim, H. J., Kim, N. J., & Yoo, K. M. (2014). Comparative research on pro-environmental behaviors(PEBs) in daily life and tourism circumstances. In *Theory and practice in hospitality and tourism research* (pp.349-353). London: CRC Press.
- Kraft, P., Jostein, R., Stephen, S., & Røysamb, E. (2005). Perceived difficulty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Perceived behavioural control or affective attitude?.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 479-496.
- McKercher, B., & Prideaux, B. (2011). Are tourism impacts low on personal environmental agenda?.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9(3), 325-348.
- McKercher, B., Prideaux, B., Cheung, C., & Law, R. (2010). Achieving voluntary

- reductions in carbon footprint of tourism and climate chang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8(3), 297-317.
- Miao, L., & Wei, W. (2013). Consumers' pro-environmental behavior and the underlying motivations: A comparison between household and hotel sett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32, 102-112.
- Patchen, M. (2006). Public attitudes and behavior about climate change. *Purdue climate change research center outreach publication*, 601.
- Rivis, A., & Sheeran, P. (2003). Social influences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Evidence for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prototypes and young people's exercise behaviour. *Psychology and Health*, 18(5), 567-583.
- Rhodes, R. E., & Courneya, K. S. (2003). Investigating multiple components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control: An examin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in the exercise domain.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 129-146.
- Schwartz, S. H. (1977). Normative influences on altruism.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221-279. New York: Academic Press.
- Steg, L., Dreijerink, L., & Abrahamse, W. (2005).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bility of energy policies: Testing VBN theor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 415 - 425.
- Steg, L., & Vlek, C. (2009). Encouraging pro-environmental behaviour: An integrative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9(3), 309-317.
- Stern, P. C., Dietz, T., Abel, T., Guagnano, G. A., & Kalofm L. (1999). A value-belief-Norm theory of support for social movement: The case of environmentalism. *Human Ecology Review*, 6(2), 81-97.
- Stern, P. C. (2000). New environmental theories: toward a coherent theory of environmentally significant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56(3), 407-424.
- Stoll-Kleemann, S., O'Riordan, T., & Jaeger, C. C. (2001). The psychology of denial concerning climate mitigation measures: Evidence from Swiss focus group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1(2), 107-117.
-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07). Davos declaration: Climate change and tourism responding to global challenges. (<http://www.unwto.org/pdf/pr071046.pdf>) (accessed 14.11.2007).
- Van Liere, K. D., & Dunlap, R. E. (1981). Environmental concern does it make a difference how it's measured?. *Environment and Behavior*, 13(6), 651-676.

2015년 4월 3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5년 4월 24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5년 5월 10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료